「2021 남북이산가족 실태조사」실시

(자료제공: 통일부 이산가족과 ☎ 02-2100-5915)





2021 북이산가족 조사기간 2021년 45

2021 남북이산가족 실태조사는 향후 남북이산가족의 전면적 생사확인과 교류에 대비하여 기존 신청 정보를 현행화하고 이산가족 교류 실태 및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시합니다.

이산가족의 오랜 바람이 이루어지도록 2021 남북이산가족 실태조사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참여방법

조사원의 전화조사 또는 방문조사에 응답

- 조사원이 조사기간 중 이산가족찾기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휴대폰이나 자택으로 전화 또는 조시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 ※ 가구 방문 시,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콜센터

0212056-3388 오전 9시~오후 9시[월~금]

홈페이지 남북이산가족찾기 https://reunion.unikorea.go.kr 남북이산가족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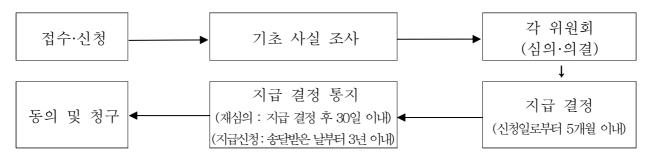


지뢰사고 피해 위로금 등 지급 신청 마감 안내

(자료제공 : 국방부 지뢰피해자지원단 ☎ 02-748-5962)

- 지뢰사고 피해자 지원 : 지뢰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 하는 제도(법률 제 16359호, 2019. 4. 23. 일부개정, 시행 2019. 6. 1.)
- 신청대상자 : 1953.7.27.~2012.4.15. 기간 발생한 지뢰사고 피해자 및 그 유족 (군인 등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국가 배상을 받은 경우는 제외)
- 신청기간 : 2019. 6. 1. ~ 2021. 5. 31.
- 제출 서류 및 방법
 - 제출 서류 : 신청서, 사건경위서 등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홈페이지 참조 (국방부 홈페이지 →업무분야별 자료→서식→지뢰피해자 위로금등 신청서식→ 첨부서류 클릭 활용)
 - 신청방법 : 우편 및 방문(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지뢰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 우 04383)
 - 문의처 : 02-748-5962

○ 업무 처리 절차



6 · 25전사자의 가족을 찾습니다.



병영생활 고충상담,성폭력 · 군범죄 신고/상담 「국 방 헬 프 콜 ☎ 1 3 0 3」

(자료제공: 국방부조사본부 ☎ 02-748-1973)



국민비서 백신접종 안내서비스

(자료제공: 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실 ☎ 044-205-1064)



우리 주변의 희망과 행복을 전하는 이웃을 추천해 주세요

(자료제공 :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 ☎ 02-2100-4110)

희망과 행복을 전하는 이웃을 찾아주세요.

국민이 추천하고, 정부가 포상하는 국민추천포상 올해 11회째를 맞아 여러분의 추천을 기다립니다.

 사회봉사와 나눔을 실천하는 분, 생명사랑과 환경보호에 앞장서시는 분, 주변에 용기와 희망을 전하는 분 등 각 분야에서 타인의 귀감이 되는 우리 주변 이웃들이 추천대상이 됩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위기극복에 헌신· 봉사한 숨은 주인공을 찾아 주세요.

- 추천은 개인이나 단체 등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추천하시려면, 인터넷, 이메일로 추천서를 작성·제출하거나, 스마트폰 (m.sanghun.go.kr)으로도 간편하게 추천할 수 있고, 우편 및 직접 방문을 통해 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인터넷: www.sanghun.go.kr / 이메일: sanghun114@korea.kr
- ▶ 모바일(스마트폰) : m.sanghun.go.kr
- ▶ 우편 또는 방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
- 추천은 연중 가능하며, 올해 심사대상 추천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추천된 분들 가운데 국민추천포상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하고 연말에 포상을 할 예정입니다.
- ▶ 우리 사회를 밝고 따뜻하게 만드는 미담의 주인공들이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현충일에 조기(弔旗)를 달아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립시다.

(자료제공: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 02-2100-4077)

- 오는 6월 6일은 제66회 현충일입니다.
 - 우리 모두 태극기 [弔旗] 를 게양하여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뜻을 기리고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깁시다.

《조기 [弔旗] 게양 방법》



- 깃봉에서 깃면의 너비(세로길이)만큼 내려서 답니다. 단,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의 길이가 짧은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기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최대한 내려서 게양함
- **가로기와 차량기**는 국경일 등 경사스러운 날에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게양하고 있으므로, **현충일에는 게양하지 않습니다**.
 - ※ 단, 국립현충원 등 추모행사장 주변 도로나 추모행사용 차량에는 조기형태로 달 수 있음
- 심한 비·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답니다.

《 가정에서의 태극기 게양 위치 》

-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 이나 왼쪽에 답니다.
 - ※ 태극기 게양시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고, 아파트 등 고층건물에서는 난간 등에 단 태극기가 떨어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람

《 태극기의 구입 》

- 각급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 인터넷 우체국(www.epost.go.kr),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오염·훼손된 태극기는 각급 지방자치단체 민원실, 주민센터에 설치된 국기 수거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5월 국정홍보만화 (예술활동증명 심의기준 완화로 예술인복지참여 확대)

예술 활동 증명 심의 기준 완화로 예술인복지 참여 확대











예술 활동 증명 심의 대상이 되기 위한 온라인 예술 활동의 기준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이나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예술 활동이 온라인 으로 전환된 경우.
- 공공기관, 지자체 등이 지원하는 온라인 예술 활동에 참여하거나 온라인 예술 활동에 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예술 활동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예술인복지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첫걸음 **'예술 활동 증명'**

- 접수기간 / 연중 상시
- 접수방법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www.kawfartist.kr

문의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 xxxxxx k2xx
- 02-3668-0200, www.kawf.kr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www.kawfartist.kr

제작 : 문화체육관광부 여론과 ☎044-203-2922 / 자료제공 :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 ☎044-203-2722

5월 국정홍보만화(대한민국 국가대표 공동브랜드 '브랜드 K')

대한민국 국가대표 공동브랜드, 브랜드K















불법도박 금지 및 신고 안내

(자료제공: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조사홍보과 ☎02-3704-0554)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받으세요!!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 ☎ 044-201-1575)



★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받으세요!!

1. 지원대상

- (건강보험) 농촌 및 준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지역건강 보험에 가입한 세대
- (연금보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업인

2. 지원내용

- (건강보험) 농업인이 납부할 건강보험료의 월 최대 101,610원 지원
 - * 지원금액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1,800점 이하 : 부과보험료의 28%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1,801~2,500점 : 101,610원 정액
 - * 지원제외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2,501점 이상
 - * 보건복지부에서는 농촌 거주자에 대해 건강보험료의 22% 별도 감면
- (연금보험) 농업인이 납부할 연금보험료의 월 최대 45,000원 지원
 - * 지원금액 : 기준소득금액(100만원) 이하 : 월 연금보험료의 50% 기준소득금액(100만원) 초과 : 월 45,000원 정액
 - * 지원제외 : (소득기준) 연 6,000만원 이상, (재산기준) 10억원 이상

3. 환수제도

● 보험료 지원받은 농업인이 자격을 상실한 경우(농업인→비농업인)에는 즉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상실 시점부터 지원받은 보험료를 환수할 예정**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번없이) 1577-1000 국민연금공단 (국번없이) 1355
- 농업경영체에 등록하신 분은 별도 서류제출 없이 간편하게 전화로 신청과 문의 가능 (건강보험의 경우, 읍·면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 등록자에 한해 전화신청 가능)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기초생활을 돕는 취약농가 인력지원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 ☎ 044-201-1575)

1. 사업내용

- (영농도우미) 사고나 질병으로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에 영농도우미 지원
- (행복나눔이) 농촌지역 고령·취약가구에 말벗, 가사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행복나눔이 지원

2. 지원대상

- (영농도우미) 사고·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법인제외)로 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인 농업인
 - ① 사고 및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② 제1~2급 법정감염병(코로나19 포함) 확진자와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 (보건소 등)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 ③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최근 6개월 이내 해당 질환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 * 심장질환 중에 고혈압 제외
 - ④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
- (행복나눔이)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가구(독거노인 포함), 중위소득 50%이하 수급자, 결혼이민여성(다문화가정), 장애인, 조손가구

3. 지원내용

- (영농도우미) 연간 최대 10일(제1~2급 법정감염병 최대 14일)
 - 1일 지원단가 80,000원 중 국고 70% 지원(56,000원), 본인부담 30%(24,000원)
- (행복나눔이) 연간 최대 12일(결혼이민여성상담 최대 24일)
 - 1일 활동비 15,000원 중 국고 70% 지원(10,500원), 농협 30%(4,500원)

4. 문의처

- (농협중앙회) 02-2080-5424, 거주지 지역농협(농·축협 1,118개소)
 - * 가까운 지역농협에 신청하세요

2021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생 모집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정책과 **5** 044-201-2425)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신청 안내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코로나19대책반 ☎ 044-201-1162)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5월 14일(금)까지 신청

신청기간을 <mark>2주일 연장</mark>하고 지원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 지원대상

'20년 생산·운영 실적이 있고, '20년 매출이 '19년 대비 감소한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 생산 농가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 지원내용 바우처 100만 원

- 지급방식 '21년 6월 1일부터 선불카드 지급(일부 업종 사용 제한)
- 이용시기 '21년 9월 30일까지

✓ 신청기간 및 방법

- 온라인 '21년 4월 12일(월) 5월 14일(금)
 - '농가지원바우처.kr' 접속·신청(PC·모바일 가능)
- 현장 '21년 4월 14일(수) 5월 14일(금)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접수
- 필요서류 신청서(지자체 방문시 제공), 신분증, 위임장(대리 신청의 경우),
 - 증빙서류(자격증빙: 경작사실확인서 등, 매출증빙: 출하실적증명서 등)

✓ 기타사항

- 분야별 지원요건, 증빙서류, 바우처 사용 가능 업종 등은 '농가지원바우처.kr' 홈페이지 참고
- 자세한 사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바우처 콜센터 (1670-2830)로 문의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신청 안내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코로나19대책반 ☎ 044-201-1164)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시행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농가를 위한

농가당 30만 원 바우처가 지원됩니다

☑ 지원대상

'20년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 수령받은 사람 중 '21년 4월 1일 현재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 지원내용

- 지급방식 농협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 이용방법 지급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일부 업종 사용 제한)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1차) '21년 4월 5일(월) 4월 30일(금) (2차) '21년 5월 14일(금) - 5월 31일(월) (2차 신청은 현장 접수만 가능)
- 신청방법 농·축협 및 농협은행, 농협카드 온라인 홈페이지
- **필요서류** 신청서, 본인신분증, 위임장·가족관계증명서 (세대주 아닌 세대원이 대리 신청 시)

☑ 기타사항

- 지원대상자 및 사용가능 업종은 '농가지원바우처.kr' 홈페이지에서 4월 5일부터 확인 가능
- 자세한 사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가지원바우처 콜센터 (1670-2830)로 문의



5월 제철 농산물 홍보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급식진홍과 ☎ 044-201-2272)

전강한 5월의 지금 은 모두 옳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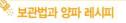


IJE회복 **양파**

✓ 다채로운 맛의 향연

요리법에 따라 천차만별의 맛을 내는 양파는 아삭이식한 식감과 개운함, 매운맛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 많은 사랑을 받는 식재료이다. 양파에는 포도당 대사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미량 무기질인 크롬이 풍부하여 혈당을 조절해주며,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은 일산화질소를 배출하여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또한 양파는 만성피로와 식욕부진 개선에도 효과가 있는 만큼 피로회복이 필요한 현대인들에게 필수적인 식재료라고 할 수 있다.



무르지 않고 단단하며, 싹이 보이지 않는 것을 골라, 망에 담아 통풍이 잘되는 서늘한 곳에서 보관하는 것이 좋다.







要

양파피클



✓ 피부미인의 필수

길고 곧게 뻗은 영룡한 자태, 아삭아삭하고 부드러운 식감, 시원하고 청량함이 특징인 오이는 조직의 96%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길증 해소에 도움을 주는 채소이다. 오이에는 비타민C가 함유되어 피부 미용 및 보습효과가 있으며, 이뇨 작용과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되는 칼륨이 풍부한 특징이 있다. 또한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 체내의 열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오이 속에 포함된 이산화규소는 모빌의 성장을 촉진해 준다고 알려져 있다.

고르는법과 오이 레시피

만져보았을 때 단단하며, 꼭지가 마르지 않고 싱싱한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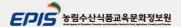


오이색러드

우이복차반

오이주시





태양광 설비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요령 안내

(자료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 044-203-5366)

태양광 설비 소유주(또는 관리자)께서는 **풍수해 집중시기 사고 예방**을 위해 점검요령 및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시어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태양광 설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구	분	점검사항	점검결과
		o 정상적으로 가동 중인가?	□양호 □미흡
		o 모듈/집열판과 지지대 사이의 결속은 양호한가?	□양호 □미흡
공 사		o 각 지지대의 휨, 균열 등이 있는가?	□양호 □미흡
		o 기초부위(콘크리트 등)의 균열 및 파손이 있는가?	□양호 □미흡
		o 외관상 파손이나 균열이 있는가?	□양호 □미흡
	일 반 부 지	o 설비 주변 환경 관리가 잘 되고 있는가?	□양호 □미흡
		o 배수시설 맨홀 및 배수로에 이물질이 있는가?	□양호 □미흡
입 지		o 경사면 배수시설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양호 □미흡
별 점		o 지지대의 침하가 없으며, 지지대-지반의 고정상태는 양호한가?	□양호 □미흡
- 검 사		o 부지 내 지반침하, 토사유출, 세굴현상의 흔적이 있는가?	□양호 □미흡
· 항	건 축 물	o 축대의 균열, 누수 등이 있는가?	□양호 □미흡
		o 지붕과 기초, 구조물은 헐거움 없이 단단히 결착되었는가?	□양호 □미흡
		o 지붕방수에 문제는 없는가?	□양호 □미흡

※ 점검결과 미흡사항 발생 시, 시공기업을 통해 개선 조치를 받으시기 바라며, 애로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고장접수지원센터(201544-0940)를 통해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등록 대상질환 확대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044-202-3299)

○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개정('21.4.13. 시행)으로 그 동안 장애로 인정되지 않았던 복시·투렛장애 등 12개 질환에 대하여 장애인정기준 신설

<장애유형별 확대질환>

구분	현행	개선	비고
□ 시각장애			
① 복시	장애 미해당	심하지 않은 장애	신설
② 정신장애			
① 조현병, ② 양극성 정동장애	심한장애	심한장애 +	경증
③ 재발성 우울장애, ④ 조현정동장애	급인경에	심하지 않은 장애	신설
⑤ 기질성 정신장애	장애 미해당	심한장애 & 삼하지 않은 장애	신설
⑥ 강박장애	장애 미해당	심하지 않은 장애	신설
⑦ 투렛장애	장애 미해당	심하지 않은 장애*	신설
⑧ 기면증으로 인한 정신장애	장애 미해당	심하지 않은 장애	신설
③ 지체장애			
①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장애 미해당	심하지 않은 장애	신설
④ 간장애			
① 간신증후군(합병증)	장애 미해당	심한장애	신설
② 정맥류출혈(합병증)	장애 미해당	심한장애	신설
5 안면장애			
① 백반증	장애 미인정	심하지 않은 장애	신설
② 노출된 안면부의 변형	45% 이상	30% 이상	경증기준 완화
6 장루·요루장애			
① 배뇨장애로 인하여 긴헐적 도뇨를 하는 경우	장애 미해당	심하지 않은 장애	신설
② 인공 방광 수술을 한 경우	장애 미해당	심하지 않은 장애	신설
③ 방광 손상・절제 등에 의한 완전요실금	장애 미해당	심하지 않은 장애	신설

- * 신체적 증상이 동반된 경우 '심한 장애'로 상향조정 가능
 - 개정된 기준에 따라 새롭게 장애등록을 신청하거나 장애정도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

<장애등록절차>



※ 문의처 :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확대질환 장애인정기준 및 장애등록시 구비서류

<장애유형별 확대질환 장애인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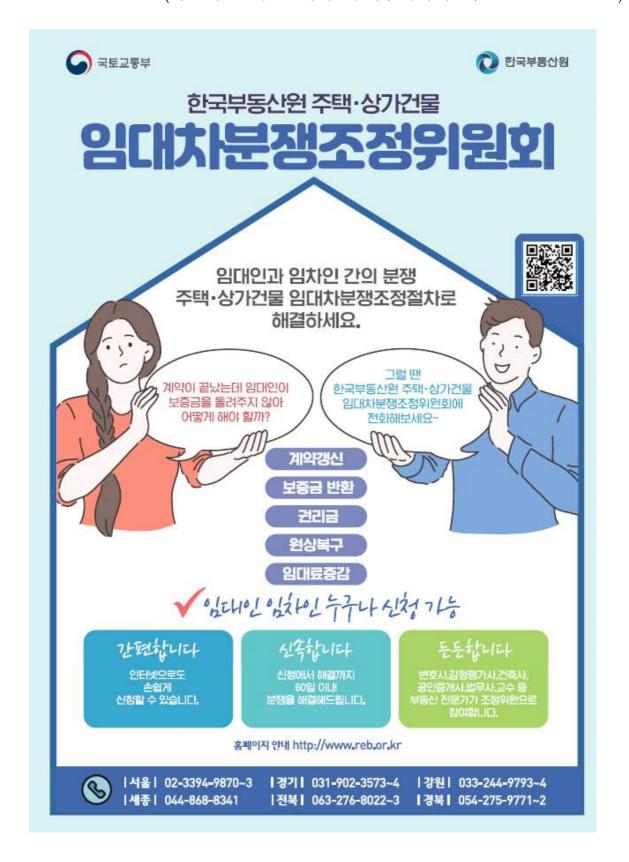
장애유형	주요 내용
	-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으로 객관적인 검사 결과 이영양성 변화 등
지체장애	으로 인한 근위축 또는 관절구축 등이 있는 사람
시각장애	- 두 눈의 중심시야에서 20도 이내에 복시 가 있는 사람
	- 노출된 안면부의 30% 이상이 변형된 경우
안면장애	-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에 백반증 이 있는 사람
	- Child-Pugh 평가 정도 B이면서 ①난치성 복수, ②간성뇌증 2회 이상,
간장애	③간신증후군, ④정맥류 출혈, ⑤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중 하나의 합
	병증이 현재 있는 사람
자근 이르자에	- 심각한 배뇨장애가 있어 요역동학검사 등 객관적인 검사결과 배뇨근 수축이
장루·요루장애	없거나 현저히 감소된 사람
	-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로 양성증상 또는 음성증상이
	지속되어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측정기준 6항목 중 3항목 이
	상에서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정신장애	-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 투렛장애 및 기면증 에 따른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장애의 증상이 심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한이 있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측정
	기준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도움이 수시로 필요한 사람

<장애등록 심사시 구비서류>

장애유형	구분		주요 내용
 지체장애	공통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CRPS에 한해 미취통증의학과 전문의 가능)
	검사자료		골스캔 및 X-RAY 또는 CT
(CRPS)	의무기록		CRPS 진단 당시 기록 및 장애진단 직전 2년 이상의 진료기록지
	공통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시각장애용 소견서
시각장애	검사자료 의무기록		동적복시 시야검사, 사시각 검사, 필요시 Hess Screen 검사,
[겹보임(복시)]			안구운동사진 등
			장애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의무기록지
	공통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정신장애	검	기질성	기 시행한 뇌영상(CT 또는 MRI 등) 자료(발생 당시 자료 포함)
(기질성 정신장애,	사	정신장애	7 180 488(OF XE WITE 8) NA(28 891 NA XB)
		기면증	수면다원검사 결과지 등
기면증, 투렛,	자	투렛장애	YGTSS 검사 결과지 등
강박장애)	료	강박장애	진료기록지
	의무기록		진단 당시 초진기록 및 진단 직전 2년 이상의 의무기록지
 장루·요루장애	공통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검사자료		요역동학검사 등
(심각한 배뇨장애) 	의무기록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의 의무기록지 (수술 또는 시술 기록지 포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신청 안내

(자료제공: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지원팀 ☎ 044-201-4178)



독립유공자의 후손을 찾습니다

(자료제공: 국가보훈처 공훈관리과 ☎ 044-202-57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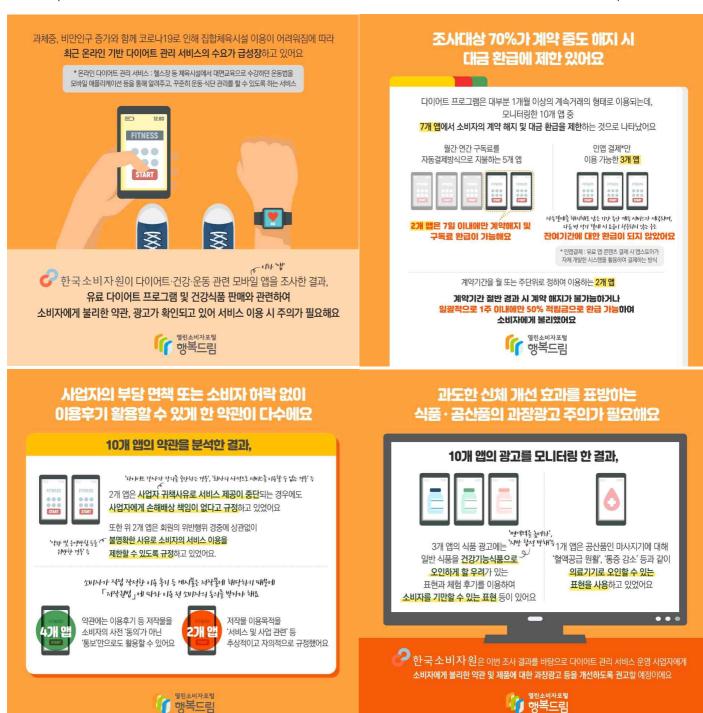
○ 누리집 접속방법

- 국가보훈처 누리집(www.mpva.go.kr) 메인화면 우측 <독립유공 자의 후손을 찾습니다> 클릭

다이어트 앱, 부당 약관 및 과장 광고로 소비자피해 우려

- 조사대상 70%가 대금 환급을 제한하고 사업자 면책 등 부당약관도 다수 -

(자료제공: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정보교육국 ☎ 043-880-5745)



□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 www.consumer.go.kr)'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www.ccn.go.kr)'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

우리의 나무가 아플 때는 나무병원을 찾아주세요!

(자료제공: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 042-481-4064)

□ 2018년 6월 28일부터 '나무의사 제도' 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나무의사 제도'는 우리의 나무가 수목진료전문가(나무의시 수목치료기술자)에 의해 진단과 치료를 받도록 한 것으로, 기존 비전문가에 의해 발생하는 부적절한 약제살포 등의 문제를 개석 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나무의사 제도의 시행으로 수목에 대한 진단·처방 및 예방·치호 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를 보유한 나무병원 을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보호법」제54조에 따라 500만위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우리의 나무가 아플 때는 나무 병원을 이용해주세요.
O 우리 지역의 나무병원은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산림사업법인관리시스템 (https://fec.forest.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무의사 제도 인포그래픽





우리의 나무가 아플 때는

나무병원을 찾아주세요!



"우리의 나무들이 건강해야 우리의 삶도 쾌적합니다."

우리의 삶에 맞닿아 있는 소중한 나무! 나무는 해충이나 병원균으로 병이 들거나 잘못된 농약 사용, 자연재해로 인해 훼손되기도 하는데요. 나무가 아플 때는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가 있는 나무병원을 이용하세요.

나무병원이 필요한 이유?



"나무를 건강하게 해요"

안전하고 적합한 약제 처방으로 나무의 건강을 지켜 우리 집과 함께 사는 자연을 보호해줘요.



"나와 가족을 지켜줘요"

나무의사 처방 없이 하는 방제는 토양, 나무 식재 상황 등 정확한 진단 없어 이뤄져요. 의사와 약사에게 처방받지 않은 약은 내 가족에게 위험하듯이 우리를 둘러싼 자연을 위협해요.



"우리 가족에게꼭 필요한 병원이에요"

나와 가족의 삶을 맡긴 집을 품고 있는 자연 숲 나무의 위험은 가족의 위험이 돼요. 나무의사 전문 진료로 제대로 된 처방을 받아 건강해진 나무는 우리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요.



나무의사 나무병원 상식

우리는 아프면 전문병원을 찾아가고 건강 검진을 받아요. 우리 삶과 함께 숨 쉬는 자연도 건강해지려면 나무의 정확한 진료가 필요해요. 나무병원의 전문 진료와 치료에는 다소 비용이 발생하지만, 결국 나무의 건강은 나와 내 가족, 삶의 건강을 지키는 길이랍니다.





전문 수목진료 기관은?





수목진료 전체

(수목피해 진단·처방·예방·치료)



수목진료 중 처방에 따른 약제살포

(나무의사 진단 처방에 따라 예방 처료 담당)



나무의사 나무병원 법 추가 상식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 또는 나무의사·수목치료기술자가 아닌 자가 수목을 대상으로 약제살포 등 수목진료를 수행할 경우 5백만원 이하의 벨금이 처해줍니다.

나무의사 처방제란?



나무병원이 수목진료 중 농약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나무의사의 처방전을 발급받도록 하는 제도



나무의사는 직접 수목피해 현장 방문





진료사항 진료부에 기록



농약사용시 처방전 의무 발급



나무의사 나무병원 법 추가 상식

처방전 없이 농약을 사용하거나 처방전과 다르게 농약을 사용한 나무병원에는 5백만원 아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이나 부정한 뱅법으로 처방전을 발급한 나무의사는 자격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반게 됩니다.

공급해요 Q&A





나무가 어디가 아픈지 잔다. 처항, 치료하는 모든 과정입니다. (농작물 제외)

① 아파트 단지 나무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니무병원을 이용하세요. 이파트 단지의 나무는 나무의사나 수목치료기술자가 있는 나무병원만이 진료할 수 있습니다.

② 조경회사나 실내소독업체가 그냥 하면 안되나요?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이었거나 나무 병원을 등록하지않고 할 경우 나무 치료를 제대로 할 수 없음뿐더러 [산립보호법] 위한으로 500만원 이하의 발금이 부족됩니다.

① 우리지역 나무병원 어디에 있나요?



산립청에서 운영하는 '산립사업법인관리시스템' (http://inc.forest.go.ic)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당신의 3초가 숲의 100년을 지킵니다

(자료제공: 산림청 대변인실 ☎ 042-481-4074)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안내

(자료제공: 질병관리청 인수공통감염관리과 ☎ 043-719-7167,7168,7183)

- 따뜻한 봄철이 되면서 사람들의 야외활동이 증가하고, 진드기도 활동하기 시작함에 따라 **바이러스나 균을 가지고 있는 진드기에 물리면 진드기 매** 개 감염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 * 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라임병 등
-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농작업 시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경우가 많으며, 캠핑, 등산, 산나물 채취 등 야외활동 시에도 진드기에 물려 감염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및 주의사항 >

○ 농작업 및 야외활동 전

- 작업복과 일상복은 구분하여 입기
- 작업 시에는 소매를 단단히 여미고 바지는 양말 안으로 집어넣기
- 진드기 기피제 사용이 도움이 될 수 있음

○ 작업 및 야외(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풀밭 등)활동 시

-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거나 눕지 않기
- 돗자리를 펴서 앉고, 사용한 돗자리는 세척하여 햇볕에 말리기
- 풀밭에서 용변 보지 않기
- 등산로를 벗어난 산길 다니지 않기
- 진드기가 붙어 있을 수 있는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기

○ 작업 및 야외활동 후

- 옷을 털고, 반드시 세탁하기
- 즉시 목욕하고, 옷 갈아입기
- 머리카락, 귀 주변, 팔 아래, 허리, 무릎 뒤, 다리 사이 등에 진드기가 붙어 있지 않은지 꼼꼼히 확인하기
- 진드기에 물린 것이 확인되면 바로 제거하지 말고 의료기관 방문
- 농작업/야외활동 후 2주 이내에 고열,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 있을 경우 즉 시 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료받기
 - ※ 코로나19 증상과 유사하므로 병원 진료 시 의료진에게 농작업/야외활동력을 반 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전쟁기념관 기획전『1952, 아주 보통의 나날들』개최

전쟁기념관(관장 이상철)은 '1952, 아주 보통의 나날들(1952, Quite Ordinary Days)' 사진전을 오는 4월 29일(목) 전쟁기념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전시는 작년 6·25전쟁 70주년 특별기획전 '사람을 만나다'에 이어 '사람'을 중심으로 전쟁을 재해석한 두 번째 기획 전시이다. 특히 2021년 전쟁기념관 연중기획전 'Life goes on'의 서막을 여는 전시로서, 전쟁 중에도 평범한 일상을 회복해 간 모습을 통해, 오늘날 '코로나 19'라는 또 다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국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기획되었다.

6·25전쟁 당시 미 육군 사진병이었던 폴 굴드 슐레신저(Paul G. Schulessinger)가 전쟁 중에 우리 일상을 담은 사진들이 이번 전시의 소재이다. 이번에 공개 되는 총 120여점의 사진들은 지난 2011년 6월에 기증된 1,000여 점과 이번 전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폴 슐레신저의 딸, 게일 펠키(Gail Pellky)로부터 추가로 기증받은 300여점 중에 가려 뽑은 것들이다.

'1952년, 아주보통의 나날들(1952, Quite Ordinary Days)'은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2에 촬영했음에도 전쟁의 와중임을 느끼기 어려운 일상의 사진들로 가득하다. 전시의 구성은 52년을 형상화 한 구조물에 '그럼에도 살아간다는 것', '저마다의 자리에서', '함께 부대낄 수 있다는 것', '평범하지만 찬란한' 등 각각의소주제에 일, 놀이, 삶, 표정 등으로 구분된 일상의 사진들을 전시한다. 관람객들에게 전쟁 중의 보통의 일상을 보여줌으로써 코로나 시국이 한창인 오늘날에도 '보통의 나날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담담하게 전달되도록 연출하였다. 이번 기획전은 기획의도를 담은 글들이 과감하게 생략되고 간단한 메시지와 사진 영상들로만 구성되는 것 또한 특징이다.

특히 이번 전시를 통해 최초 공개되는 유품 '고무도장'은 한국을 사랑한 폴 굴 드 슐레신저와 한국인 아내와의 영화보다 더 극적인 러브 스토리가 담겨있다. 이 도장은 슐레진저가 1954년에 군 복무기간이 끝나 먼저 미국으로 돌아갈 당시 연인이었던 김명숙이 선물한 것으로, 그가 한국 주소로 편지를 보내기 어려울

것을 염려하여 자신의 주소를 한자로 새겨 넣은 것이다. 이 러브스토리는 딸 게일 펠키의 목소리가 담긴 모션 그래픽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여 전쟁기념관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 서비스 한다.

이상철 전쟁기념관장은 "1952년이라는 전쟁의 한복판에도 우리의 선배들은 무 던히 일상을 회복해 나갔고 그 힘은 이후의 시간들을 살아가는 자양분이 되었 다"면서 "오랜 시간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에게 다음의 시간들을 차분히 준비해 나가자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1952, 아주 보통의 나날들』 전시는 개막식이 열리는 4월 29일부터 7월 18일까지 열리며, 이후 기증받은 유물을 선별하여 전쟁기념관 3층 기증실에서 상설 전시할 예정이다. 또 전쟁기념관 오픈아카이브(http://archives.warmemo.or.kr/index.do)를 통해 새로 기증받은 미공개 사진도 서비스 할 예정이다.

[붙임 1] 전시개요

【폴굴드슐레신저 전시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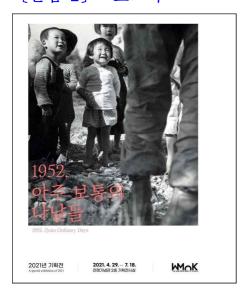
■ 전시명 : 1952, 아주 보통의 나날들

■ 장소 : 전쟁기념관 2층 기획전시실

■ 기간 : 2021. 4. 29.(목) ~ 2021. 7. 18.(일)

■ 주최 : 전쟁기념관

[붙임 2] 포스터



6월의 독립운동가 권오설·이선호·박래원·이동환 선생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공훈관리과 ☎ 044-202-5780)

민족통합을 이룬 6·10만세운동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는 광복회,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권오설(1897~1930), 이선호(1904~1950), 박래원(1902~1982), 이동환(1901~1982)선생을 2021년 6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였다.

권오설, 이선호, 박래원, 이동환 선생은 6·10만세운동을 기획하고 참여한 주요 인물들이다.

6·10만세운동은 융희황제(순종)의 인산일(因山日)인 1926년 6월 10일, 장례 행렬이 지나는 도로를 중심으로 일어났다. 당초 조선총독부는 그 뿌리까지 찾아관련자들을 '엄벌'한다는 강경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식민지통치의 부당성만 드러내는 꼴이 될 것이라는 자기모순에 빠지며, 결국 11명의 학생만 재판에 회부해 '사건'을 크게 축소시켰다. 융희황제 인산일에 울분과 감정을 이기지 못한 소수 학생들이 '감상적' 민족의식에 빠져 일으킨 만세소요로 '사건'을 마무리한 것이었다. 6·10만세운동에 대한 왜곡은 안타깝게도 그대로 광복 후에도 이어졌다. 그래서 오랫동안 6·10만세운동의 역사상을 세울 수 없었다.

6·10만세운동의 계획을 구체화시킨 조선공산당 임시상해부는 계획 초기부터 천 도교를 가장 유력한 제휴세력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투쟁지도부는 6·10만세운동 의 거사를 위해 천도교 세력과 연대를 모색해 갔다. 조선공산당과 천도교 구파 와의 연결은 고려공산청년회의 책임비서인 권오설과 박래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권오설(權五高, 1897~1930) 선생은 경북 안동 풍서면 가곡리에서 출생했다. 안동의 전통적 반촌에서 성장한 그는 대구고보를 다니다가 서울로 올라가 중앙학교에 적을 두었으나 마치지 못했다. 3·1운동 참가 이후 그는 고향에서 학술강습소를 개최하면서 교육운동에 힘을 쏟았다. 그는 교육운동에 그치지 않고, 봉건적수탈과 식민지 수탈의 이중고에 시달려야 했던 농민의 현실을 직시하고 농민운동을 전개하였다. 권오설의 중앙 진출은 안동에서의 운동 경험과 기반을 통해이뤄지고 있었다. 중앙에 진출한 이후에도 권오설은 중앙과 연계하며 안동의 대중운동과 사회주의운동을 발전시켜 나갔다.

6·10만세운동에서 권오설은 책임자의 역할을 맡았다. 운동의 추진 과정이나 모든 계획이 그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었다. 권오설은 공산청년회 인사들을 중심으

로 계획을 추진하는 가운데, 안동 출신의 이선호, 유면희, 권태성, 권오상 등은 조선학생과학연구회에서, 연희전문학교와 중앙고보 등에서 만세시위를 추진했다. 그가 작성한 「격고문」의 사상적 성향은 1920년대 초 극단의 계급지상주의를 극복하고 있었으며, 민족적 관점과 계급적 관점이 민족혁명을 위해 결합된 이념과 노선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는 출옥을 얼마 앞둔 1930년 4월 17일 서대문형무소에서 옥중 순국하고 말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이선호(李先鎬, 1904~1950) 선생은 경북 안동 출신이다. 그는 1925년 조선공학 회에 참가하면서 학생운동에 참가했다. 1925년 9월 조선학생과학연구회를 창립 할 때 사업부 책임자, 1925년 11월 임시집행부 등에 선임되었다. 그리고 이병립 과 함께 조선학생과학연구회를 중심한 6·10만세운동의 계획 주체로 활약했다. 이선호와 이병립 등은 학생 포섭의 역할을 맡으며 세칭 '통동계'와 연락을 취했다. 융희황제 승하 이후 조선학생과학연구회 내에서는 3·1운동 때와 같은 만세운동 을 일으키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었다. 조선학생과학연구회가 조선공산당의 권오설과 연결되면서, 5월 상순부터 만세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추진해 갔다. 이때 조선학생과학연구회의 임무는 인산 당일 가두 행렬의 선두에 서서 전단을 배포하고 만세를 선창함으로써 만세운동의 불을 당기는 것이었다. 조선 학생과학연구회의 간부들은 서울지역 만세운동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협의했고, 서울지역 각급 학교의 대표들을 통하여 각 학교 학생들을 포섭해 갔다. 이 과정 에서 '통동계'와도 연대를 이룰 수 있었다. 그런데 거사 직전 조선공산당이 발각 되면서 6·10만세운동의 전국적 계획은 좌절되는 상황에서, 조선학생과학연구회 는 역할 분담되었던 당초 서울지역에서의 만세운동을 독자적으로 결행에 옮기었 으니 6월 10일 서울에서의 만세운동으로 나타난 것이었다.

1927년 9월 20일 감옥에서 풀려난 뒤 1928년 일본으로 건너갔다. 그곳에서 한 인 노동자들의 권익을 추구하는 노동운동에 종사하다가 일경에 붙잡히는 일을 거듭하다가 1933년 귀국했다. 6·25전쟁 때 행불이 됐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1991년 애국장을 추서했다.

통동계라 하면 일반적으로 박용규, 이동환, 김재문, 황정환, 곽대형 등 5명을 가리킨다. 이들은 운동의 처음부터 거사까지 뜻을 같이한 학생 동지였다.

통동계의 운동이 갖는 의미는, 첫째, 독자적으로 운동을 계획했던 점이다. 그리고 자생적으로 생겨났던 점이다. 독자적이고 자생적으로 대중적 만세운동을 구상하고 추진해 갔던 것은 6·10만세운동에서 귀중한 사례가 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주체가 학생들이었던 점이다. 거사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운동은 자기 완결적 성격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셋째, 이들의 운동이 일제에 의해 차단되지 않고

거사에 성공했다는 점이다. 거사 직전 조선공산당의 계획이 발각되면서 일제의 경계와 수색은 그야말로 삼엄하기 그지없는 상황이었다. 이때에도 이들은 각 학 교에 선언문을 배포하고 또 조선학생과학연구회와 일정하게 연대를 모색하며 인 산 당일의 거사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박래원(朴來源, 1902~1982) 선생은 동학의 집안에서 성장했다. 그는 천도교 청년계에서 활약하는 한편 박래홍의 후원에 의해 사회주의운동에도 깊게 관여하고 있었다. 대일인쇄기계회사에 다니던 중 사회주의운동에 투신한 그는 경성노동연맹, 인쇄직공조합연맹, 경성인쇄직공청년동맹 등의 인쇄직공 계통과 화요회 계열의 청년·사상단체에서 활발할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 과정에서 권오설과는 깊은 동지적 관계를 이루었으며, 조선공산당과 천도교의 양 세력을 연결하는 매개 고리로 역할을 하였다.

박래원은 권오설로부터 6·10만세운동에 대한 임무 부여와 함께 가장 먼저 권동 진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며, 교주 박인호와 이종린·박래홍 등에게도 알렸다. 이 들로부터 6·10만세운동에 대한 적극적 승낙을 받아낼 수 있었다. 거사일이 임박 해 오는데 자금이 없어 격문을 배포하지 못할 때 박래원이 권동진에게 1만 원의 자금을 요청하니 주었던 사실, 인쇄한 격문을 천도교당 내에 감춰 둘 수 있었던 것, 만세시위에 천도교의 지방조직을 적극 활용하려 했던 사실 등은 천도교 구 파의 지도자들이 배후에서 적극 지원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3·1운동 당시 큰 피 해를 입은 천도교 지도자들은 일선에 나서지 않은 채 배후에서 청년세력의 활동 을 지원하는 정도에서 참여하였으며, 지원 사실도 절대로 비밀에 붙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박래원은 자금 조달 내지는 조직 동원과 관련하여 천도교의 혁신세력 인사들과도 폭넓게 연대를 모색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박래원을 중심한 천도교 측의 주요 임무는 격문 인쇄 및 배포와 지방 조직의 활용을 통한 지방 만세운동의 확산에 있었다. 박래원은 천도교청년동맹과 인쇄 직공조합의 인사들을 포섭했다. 그는 격문의 지방배포와 지방조직과의 연락을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세워놓고 준비하였으나 사전에 발각되어 모두 물거품이 되었다.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 애족장을 추서했다.

이동환(李東煥, 1901~1982) 선생은 전북 정읍 출신이다. 이동환은 항일적 민족 의식이 투철한 성격이었다. 6·10만세운동에 앞서 투쟁방법에 대해 논의가 있었는데, 이동환은 총독부를 비롯한 일본기관과 일본인들의 집단 거주지인 충정로 (本町) 일대의 폭파와 같은 보다 강력한 투쟁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그가 제의한 투쟁방법은 일동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해산하고 말았다.

본격적으로 거사를 준비 할 때의 필요 자금은 고향에서 보내오는 생활비의 일 부와 외투, 책을 팔아 충당하기로 하였다. 이동환 등 동지들은 인쇄에 필요한 물 품을 준비했다. 이동환은 조선학생과학연구회의 이선호와 중앙고보 동급생인 박용규 등과 양측에서 연락을 담당하면서 연대 투쟁을 추진해 갔다.

거사 후 체포되어 일제의 법정에 섰던 이동환은 "조선이 당장에 독립은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 민족에게 민족정신을 앙양하고 독립사상을 고취"할 목적으로 만세운동을 일으켰다는 굳센 의지를 내보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1990년 애족장을 추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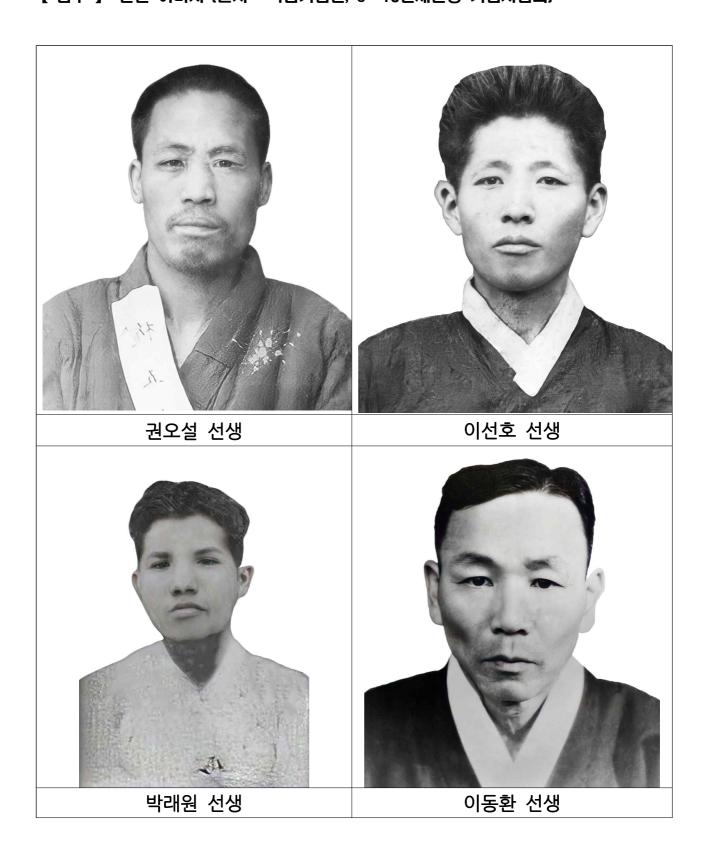
6·10만세운동의 총본부인 '대한독립당'은 종교계, 사회주의, 민족주의, 학생, 청년 등의 세력을 총망라한 민족협동전선체를 지향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6·10만세운동 계획이 거사 직전 6월 6일 발각되면서, 조선공산당과 천도교 계열의조직이 먼저 와해되고 말았다. 위기 상황에서 체포망을 피한 학생들에 의해 만세운동이 추진되었고 당일 성공적인 만세시위가 벌어졌다. 6·10만세운동은 3·1운동의 역사적 기반 위에서 거행한 '제2의 만세운동'이었다.

하지만 운동의 추진 배경이나 주체, 이념, 성격 등에서 3·1운동과는 새로운 양상을 띠고 있었다. 3·1운동이 1차 대전 후 인도주의가 부상하면서 세계 개조의분위기가 무르익던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라면, 6·10만세운동은 제국주의적 지배질서가 공고해지며 국제적으로 고립된 처지에서 계획된 것이었다. 그만큼 6·10만세운동을 둘러싼 국제 환경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다.

운동의 주체들도 3·1운동 때와는 세대를 달리했다. 3·1운동에서 전위를 담당했던 학생계층이 사회적으로 성장하면서 중심 주체로 나선 것이다. 그에 따라 운동의 이념도 다원화 되었다. 3·1운동의 지도 이념이 자유주의 사상이라면, 6·10만세운동은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사상이 민족독립으로 모아지면서 이념적 연대를 이룰 수 있었다. 3·1운동에서 종교이념을 초월했다면, 6·10만세운동에서는 정치이념까지 초월하는 민족통합을 추구한 것이다. 6·10만세운동은 3·1운동 이후독립운동의 발전적 지향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6·10만세운동에서 보여준 민족협동전선의 실천은 이후 국내외 민족세력의 최대 당면과제로 부상한 민족대당촉성운동을 촉진했다. 1926년 7월에 상해에서 열린 6·10만세운동에 관한 연설회에서, 안창호는 만세운동의 정신을 계승하여 전민중의 통일기관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민족대당촉성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또 운동 주체의 하나였던 조선공산당은 「조선공산당선언」에서 6·10만세운동을 "3·1운동에 비하야 철저한 목적, 표어 및 투쟁방침을 가지어 일본 제국주의에 반항하는 민족혁명유일전선의 제작상 확고한 첫 기초"가 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런 초월적 독립운동계의 통합 운동은 만주까지 확산돼 3부의독립군을 통합하는 민족유일당운동으로 이어졌고, 국내에서는 신간회 성립의 직접적 배경이 됐다.

【 첨부 】 관련 이미지 (출처 : 독립기념관, 6·10만세운동 기념사업회)



※ 동 내용은 6월 이후에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하므로, 사전에 지자체 홈페이지, 지역신문 기사 등에 미리 게시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2021년 6월의 6·25전쟁영웅 백두산함(PC-701)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과 ☎044-202-5715)

국가보훈처는 백두산함을 '2021년 6월의 6·25 전쟁영웅'으로 선정하였다.

- 백두산함(PC-701)은 해군장병 및 가족들이 모은 성금과 정부의 지원금으로 구매한 대한민국 해군 최초의 전투함으로 6월 25일 동해로 긴급출동 명령을 받고 대한해협 근해에 나타난 적 무장수송선을 격침시킴으로써 유엔군의 해상교통로 보호와 부산교두보 확보에 크게 기여했다.
- □ 백두산함(PC-701)은 1949년 10월 17일 해군장병 및 가족들이 모은 성금과 정부의 지원금으로 구매한 대한민국 최초의 전투함이다.
 - 1950년 6월 25일 전쟁발발 당일 백두산함(PC-701)은 동해로 긴급 출동 명령을 받고 출항, 오후 8시 12분 대한해협 근해 항해 중 남하하는 적 무장수송선을 발견, 6월 26일 0시 10분 포격을 시작으로 치열한 교전을 벌였다.
 - 교전결과 01시 35분에 600여명의 무장병력이 탑승한 적 무장 수 송선을 침몰시켰며, 안타깝게도 이 교전에서 백두산함 승조원 전 병익 이등병조와 김창학 삼등병조가 전사하였다.
 - 대한해협해전은 백두산함(PC-701)이 부산항으로 침투하려던 적의 게릴라 부대를 사전에 격멸함으로써 유엔군의 해상교통로 보호와 부산교두보 확보에 크게 기여한 해상에서 최초로 승전기록을 남 긴 전투였다.

- 최초의 해전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대한민국 해군에서는 부산 중 구 중앙공원 내에 1988년 12월에 대한해협 전승비를 건립하였고, 2010년 당시 전사한 전병익 이등병조와 김창학 삼등병조의 흉상 을 설치하였다. 또한, 14번째 유도탄고속함을 김창학함, 18번째 유도탄고속함을 전병익함으로 명명하였다.
-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전사한 전병익 이등병조, 김창학 삼등병조 의 공후을 기려 1계급 특진과 을지무공후장을 각각 추서했다.



백두산함(PC-701) (1949.10.17.~1959.7.1.)

※ 동 내용은 6월 이후에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하므로, 사전에 지자체 홈페이지, 지역신문 기사 등에 미리 게시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6월의 현충인물 '김병호 육군소령'

(자료제공: 국가보훈처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과 ☎ 042-820-7065)

- 국립대전현충원(원장 이승우)은 대한민국 호국영웅 '김병호 육군소령 (6·25전쟁 전사자)'을 6월의 현충인물로 선정했다.
- 김병호 소령은 1926년 대전시 용두동에서 태어나, 1949년 육군 소위로 임관해 제6사단에서 복무했다.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제6사단은 춘천과 홍천지구에서 북한군 제2사단과 제12사단의 남하를 성공적으로 저지하였고, 횡성-충주로 이동하며 지연전을 전개해 북한군의 병력과 장비의 손실을 입힘으로써 수도권 포위작전계획에 큰 차질을 빚게 하였다.
- 국군 제6사단은 한강방어선이 붕괴된 후인 1950년 7월 5일부터 11일까지 충주에서 남하하는 북한군을 저지하였고, 음성 지구에서는 북한군의 선두부대인 제15사단 제48연대를 궤멸시키는 대전과를 거두었으며, 이화령전투·문경전투에서도 북한군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방어했다. 특히, 음성 지구의 대전과로 제7연대 전 장병이 일계급 특진하는 영예를획득했다.
- 1950년 9월 16일부터 반격작전으로 전환한 국군 제6사단은 충주-원주를 거쳐 춘천을 탈환하고 38도선을 돌파한 후 화천-김화-원산을 거쳐 성천을 점령했다. 계속해서 진격한 사단은 10월 26일 한·중 국경선에 도달해 초산을 점령한 후 압록강변까지 도달하였다.
- 그러나 중국군의 제1차 공세와 제2차 공세로 인해 1951년 1월 7일 안성-장 호원 선까지 후퇴하였고, 김병호 소령은 1951년 1월 1일 부여된 작전임 무를 수행하다 장렬히 전사하였다.
- 정부에서는 김병호 육군소령의 살신보국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화랑무공 훈장을 추서하였고, 전쟁기념관 전사자 명비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으며, 국립대전현충원 장병 제1묘역에 안장하여 그 업적을 기리고 있다.



김병호 육군소령



묘소사진 (장병 제1묘역 201묘판 304호)

※ 동 내용은 6월 이후에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하므로, 사전에 지자체 홈페이지, 지역신문 기사 등에 미리 게시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6월의 호국인물 김만술 육군대위

(자료제공: 전략기획부 기획홍보팀 ☎ 02-709-3104)

전쟁기념관은 6월의 호국인물로 김만술 육군대위를 선정하였다.

故 김만술 대위는 1929년 10월 28일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에서 태어났다. 일본 오사카공업전문학교를 졸업하고 광복 이후 귀국한 그는, 1947년 6월 조선경비대 병으로 입대하여 부산 주둔 제5연대 소속으로 근무하며 여수·순천 반란진압작전과 태백산맥 공비토벌작전 등에 참전하였다. 6·25전쟁이 발발하자 그는 국군 제1사단 제11연대 소속으로 낙동강 방어전투와 평양 탈환전투 등 주요 전투에서 활약하며 3년 동안 최전선을 지켰다.

휴전을 불과 2주 앞둔 1953년 7월 15일, 국군 제1사단은 경기도 연천 임진강 일대에서 중국군의 최후 공세를 방어하고 있었다. 사단 소속 제11연대는 임진강 전선 최북단에 위치한 이른바 '베티고지'에 전초진지를 설치하고, 제6중대 김만술 특무상사를 소위로 현지 임관하여 제2소대장으로서 15시 30분 베티고지 진지에 배치하였다. 김 소위가지휘하는 제2소대 35명은 17시 30분경부터 적과 교전하기 시작하였고, 야간에 이르러서 중대 규모로 증강된 적의 양면 공격을 받았다. 소대는 통신망이 두절된 상황에서도 백병전을 벌이며 진지를 고수하였고, 김 소위는 직접 수류탄을 투척하고 진내사격을 유도하면서 소대의 방어전투를 독려하였다. 소대는 다음날인 16일까지 5차례의 공방전을 벌이며 13시간 동안 고지를 방어하였고, 12명만이 생존한 치열한 전투 속에서도적 314명을 사살하는 전공을 거두었다.

정부는 소대 병력만으로 대규모의 적을 격퇴한 김만술 소위의 공적을 기려 1954년 7월 6일 태극무공훈장(훈기번호 제188호)을 수여하였다. 그는 1961년 대위로 예편한 후에도 시흥 상이용사촌을 건립하고 대한상이군경회 이사 등으로 활동하며 참전자의 복지 향상에 힘썼다. 1991년 5월 28일 62세를 일기로 타계하여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되었다.

※ 동 내용은 6월 이후에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하므로, 사전에 지자체 홈페이지, 지역신문 기사 등에 미리 게시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